



대한건축학회 김 광 우 회장

“서로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및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축학회 김광우 회장 프로필

- 현재** 대한건축학회 제36대 회장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학력**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75)
동대학원(1979) 및 미국 미시간대 건축학 석사(1981)
미국 미시간대 건축학 박사(1984)
- 경력**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초대회장(2007~2009)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2004~2005)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회장(2003~2004)
IBS Korea 회장(2008~2009)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2009)
서울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장(1999~현재)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소장(2011~현재)

○ 학회가 양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 지난 5월부터 학회장 임무를 시작한 이래 바빠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 중 첫 번째 학회 학술대회를 3일 행사로 확대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대한건축학회의 기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해 학회 내에 건축기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는 건설산업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동반발전의 선례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학회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이번 70주년 기념행사는 여러 행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규모를 키우고 많은 회원 및 관련 인사들이 참여시켜 건축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되, 회원들에게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부담도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 학회 설립 배경 및 조직구성은?

● 우리 학회는 1945년 조선건축기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학회는 사회적 무질서나 6.25 전쟁의 혼란 등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축의 진보와 건축기술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건축관련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 관련업체 임직원을 비롯하여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약 2만5천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특별회원과 도서관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장인 저와 함께 8명의 부회장, 이사, 감사로 꾸려진

이사회에서 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의 지회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및 활동현황을 소개한다면?

● 우리 학회는 42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춘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연구논문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회지인 '건축(建築)'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영문 논문집을 발행하는 등 학회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우리 학회는 정부와 함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각종 기준 제·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건축창의교실', '도시주거재생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건축대학 협의회(ACSA)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일본건축학회(AIU), 중국건축학회(ASC)와 공동으로 2년마다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외국 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국제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 학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

● 1978년에 학회에 가입하여 36년 동안 학회의 여러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에 대한 깊은



은 자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 학회는 직접선거를 통해 회원들이 회장을 뽑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학회가 모든 건축인의 중심이 되고, 학술단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함께 참여하고 화합·소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저탄소녹색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했는데.

● CO₂ 저감, 에너지 저감, 자원재활용 등의 친환경 건축기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실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

습니다. 앞으로 관련 구성원 모두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관련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주된 무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상당부분 친환경 기술 및 기법이 그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친환경 기술과 기법을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제도가 제도 종사자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의 기준을 베끼거나, 허용된 방법으로 지표만 맞추는 식이 아닌 목표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법이나 기술이 싹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시멘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 시멘트는 '건설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이며, 앞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소의 부침을 겪더라도 시멘트산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기능의 시멘트 신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시멘트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밖에 관련 첨단 기술과의 적극적인 융합연구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시멘트 소성기술 및 장치를 이용한 사업영역 다각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시멘트 등 각 분야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 실제로 시멘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이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건설산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소재로 반드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멘트산업을 중심으로 기금교수나 취업과 연계된 시멘트 특성화학과(학부 및 대학원)를 대학에 신설하여 산학협동과정을 만드는 인력양성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 콘크리트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시멘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시스템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학회와 시멘트협회의 협력 아래 우수한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건축 및 토목분야 콘크리트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건설경기 부진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멘트협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사가 뜻을 하나로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레미콘회사나 건설회사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역할은 시멘트협회의 주도 아래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시멘트업계와 상생협력 방안이 있다면?

● 시멘트와 관련하여 학회 내에서는 건축재료 및 시공 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따라서 시멘트협회와 이들 위원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후약방문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대책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건축학회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익단체이므로 시멘트협회와 공동으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건축학회 회원들과 시멘트협회 회원사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협회에서 연구공모를 실시하고

건축학회 회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우리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앞으로도 학술단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교육과 연구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통일과 관련해서도 대한건축학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대한건축학회를 통일을 대비한 창구로 활용하여 유관 전문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건설업계의 경쟁자는 더 이상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대한 외국 기업들의 존재감과 움직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보다 확산되어 모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